

포천지역의 축제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 방안

Promotion of Tourism Based on Festival in Pocheon, Gyeonggi Province

이 영 준*, 김 진 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Young-jun Lee*, Jin-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각 지자체마다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대부분은 유사한 형태나 테마를 띠고 있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포천시를 대상으로 육류 중심의 축제를 제안함으로써 관내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광수요와 소비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연구 배경 및 목적

포천은 서울시의 동북방향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2003년 시로 승격한 도농복합도시이다. 서울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신흥 외곽도시들이 뚜렷한 정체성 없이 베드타운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데 비해 포천은 한탄강, 명성산, 산정호수, 광릉국립수목원 등 풍부한 생태자원뿐만 아니라 “억새꽃축제”, “단풍축제”, “동장군축제”, “수목원 가는 길”과 같이 생태환경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축제를 도시브랜드로 지니고 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축산업 종사자가 있으며 서울의 약 1.5배에 달하는 면적의 1만1104ha의 농지(전체면적 대비 18%)에서 전체인구 16만여 명의 약 18.6%인 3만253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업과 축산업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의 친환경 이미지와 서울과 인접한 농촌도시로서 다양한 먹거리, 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축제를 개발한다면 관내 농축산민의 소득 향상과 농축산물 홍보, 나아가 지역이미지의 개선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축제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농축산민을 주축으로 하는 육류 중심의 먹거리 축제를 제안하고, 이를 지역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육류 축제 개발 및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포천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근거리에 있음에도 최전방 군사지역이라는 다소 경직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해소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효율적이다.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독

창성과 특성화로 축제의 가치를 높여 개최지역 이외의 구성원들을 끌어들이므로써 관광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관광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고 개발을 위한 촉매로 작용한다[1].

기존 육류와 관련된 축제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 특정한 한가지의 육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부가가치가 높은 데 있다. 이중 횡성, 파주, 홍성 등지의 한우축제는 성공한 축제로 손꼽히는데, 특히 2013년 횡성한우축제에는 6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어우러진 관광콘텐츠가 추가되면서 전체 관광객 70% 이상을 외지인이 차지하는 등 지역의 대표산업을 경제활성화로 연계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기타 육류 축제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천시의 특징을 들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와 인접하여 있어서 관광객의 대량유입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표 1에서 보듯 한·육우 사육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고부가가치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또는 열망을 반영한다[2].

표 1. 포천시 농업생산물 현황

단위: M/T

연 별	정곡 생산량	가축 사육두수			
		한·육우	젓소	돼지	닭
'07	32,918	10,761	17,664	272,710	6,307,236
'08	32,250	11,250	16,651	259,710	6,581,734
'09	21,780	12,224	17,299	235,262	6,759,869
'10	25,058	16,050	17,447	212,596	6,788,036
'11	22,896	16,058	11,363	146,200	6,009,073
'12	20,980	15,990	15,787	212,381	6,244,010

출처: 포천시청

따라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 오리 등 다양한 축산물과 부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각종 쌈채소와 같은 농산물을 포괄할 수 있는 육류축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내방객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Ⅲ. 육류축제의 세부 사항 및 전개

1. 참가 소재

포천시 관내 농축산업인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육류 전체의 소재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 관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축산물을 축제의 기초 자산으로 하여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축제의 수립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지역축제의 성패 여부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각 참여주체가 시작부터 추후 사정까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양한 육류를 축제의 소재로 사용하면 다원화 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즉, 종교, 기호,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특정 육류를 기피하는 방문자의 취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

기존 축제에서 한 코너를 차지하는 데 그쳤던 각종 농산물을 소재로 활용한다. 쌈을 즐기는 우리나라의 식습관을 고려한다면 각 쌈채소와 쌀, 기타 농산물 또한 고기축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구이, 조림, 수육 등 다양한 조리법의 시연이 가능하고 야외와 실내 모두를 활용할 수 있어서 축제의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날씨와 같은 돌발적인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 운영방식

앞서 언급한대로 포천의 육류축제는 청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친환경 먹거리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청이나 관내 농축산관계기관이 보증하는 지역 농축산물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내에서 사육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는 소비자의 구매 측면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육자 및 재배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건강, 위생, 보건 등에 대한 관심의 증가하는 추세로써 인증제의 도입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일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이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내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나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인증제를 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축산물을 세분화하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사육이나 재배 여건에 따라 소, 돼지, 닭, 오리, 발작물, 버 등 4-5개 분야로 나누어 관리한다. ② 농약이나 항생제, 성장촉진제 또는 억제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재배나 사육 환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이를 충족한 대상에게만 축제의 참가나 인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③ 인증을 받은 농축산가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내 관련 종사자들

의 참여를 유도한다. ④ 꾸준한 교육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코너의 판매부스를 설립하여 단순한 먹거리 축제에서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소비자층을 유입할 수 있게 한다. 농축산물 판매 코너, 음식점 참여 코너,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한 신개발 고기요리 코너, 다문화 음식 코너, 요리 체험 코너 등 관광객이 다양한 농축산물을 맛보고, 구매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한다.

Ⅳ. 결론 및 제언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포천의 육류축제는 포천관내의 농축산물을 홍보하여 지속적인 소비와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지지와 후원을 얻기에 용이하다. 또한 관내 농업 관련 협동조합이나 축산협회 등 농축산협회에서 농민들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다시 관내의 다양한 음식이나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관내의 농축산물을 기본 재료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 및 조리된 식품을 소개함으로써 외국인들이 포천시를 재방문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포천에는 이미 기존의 대표 먹거리인 이동갈비나 이동막걸리가 있다. 육류축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천의 음식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관광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축제운영에는 소재의 신선도나 청결도 중요하지만 숙련된 조리사나 운영요원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장소 선정시 내방객의 관리가 쉽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먼지가 적으며 쓰레기나 오염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예를 들면 산정호수 인근이나 대진대학교 중문과 정문 사이의 도로, 청성공원 주변 등이 있다. 지역축제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참여와 운영주체인 민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축제의 도입 논의단계에서 홍보 및 사후 사정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특히 외지의 내방객에게 축제를 알리는 홍보활동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포천과 같은 소도시는 전국적인 홍보에 어려움이 큰 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인 시청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사, 농민신문, 주요 TV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문건을 배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이나 스마트폰앱과 같은 최신 문화기술을 활용하여 가족단위의 관광객과 젊은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뉴미디어인 SNS나 Youtube 등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관광수요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최정운, "지역문화축제의 마케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울산 처용문화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71, 2007.
- [2] 이영준, "포천시를 모델로 한 농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과 발전 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7호, 2014.